

바꾸자 그리고 희망을 쏘자 한국불교의 희망찾기②

시대는 변했다. 세상은 더 이상 이념이나 정치·경제적 논리에 의해 움직이기를 거부한다. 그렇다면 오늘, 그리고 미래를 움직일 동력요인은 무엇일까.
그 키워드는 바로 '문화'다.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다듬어 계승 발전시키느냐에 따라 문화는 세상을 좌우하는 '큰 힘'이 될 수 있

다. '문화'란 그 시대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다. 그 안에 불교가 있고, 거기에 우리가 찾아야 할 가치가 있다.
그런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불교의 전통과 문화. 서구에서, 인터넷에서, 그리고 우리의 문화 속에서 불교가 내일의 희망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04 · 갑신년
현대불교 창간 10주년



◇ 전통불교의식인 영산재. 최근 정부로부터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을 받으면서 불교 전통 문화로 확실히 자리매김이 됐다.

한국불교의 수행·문화 전통은 서구에서도 인정하듯이 인류의 정신문화를 채워 줄 수 있는 보편적인 사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작 이 점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이런 것이야말로 불교가 우리 사회의 정신적 자양분이 되는데 걸림돌이 된다. 불교가 이 시대의 종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한국불교의 수행·문화 전통을 올바르게 발전·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전파된 세계 각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불교의식을 정립시켰다. 우리나라도 민족 문화와 예술발전이 깊은 영향을 미쳐 연등회, 팔관회, 수륙재, 우란분제 등의 형태로 전통의식에 구체화했다.
유·무형의 전승유산 역시 한국불교의 전통이다. 무형 유산으로는 간화선 중심의 수행가풍과 영산재 등의 의식, 사찰과 각종 불규류를 생산해온 정인정신 등이 있으며, 문화재·불화·불상·가사장삼

수행·문화전통의 계승

간화선 수행 한국불교 미래밝힐 법등 사찰음식·문양·연등축제 등 상품화 박차

말다면 한국불교의 수행·문화 전통에는 무엇이 있는지 또 어떻게 발전적 계승을 해야 할까.
무엇보다도 간화선 수행가풍이 있다. 임제종풍의 조계종 수행가풍은 전국의 선방에서 대중수행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간화선 수행 전통은 일반 재가불자에게도 수행의 지점이 되는 등 요즘 들어 '수행의 일반화' 현상이 한국불교계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간화선 수행 전통이 한국불교의 미래를 밝힐 법등(法燈)이 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불교의식 역시 계승해야 할 한국불교의 전통이다. 불멸 후 성립된 율장은 불교가

·단청 등의 유형 전승 유산이 있다.
이 같은 불교의 유·무형 문화유산은 최근 '불교문화상품'으로 개발하려는 움직임과 함께 새로운 '전통 만들기'로 이어지고 있다. 영산재, 참선, 발우공양, 다도 등의 무형 문화는 실생활에서 응용할 수 있도록 체험 프로그램으로 다양화되고, 사찰 문양이나 음식문화 등의 유형문화는 현대적 이미지에 맞춰 '상품'으로 탈바꿈되고 있다. 특히 템플스테이, 사찰 수련회, 연등축제 등은 이미 불교문화 유산을 활용한 대표적인 한국불교전통 계승의 방법으로 자리 잡고 있다.
김철우 기자

'어제'를 다듬어 '내일'을 만든다

불교문화 콘텐츠

풍부한 1차 자료 다양한 개발 가능 자연스럽게 포교 기반도 형성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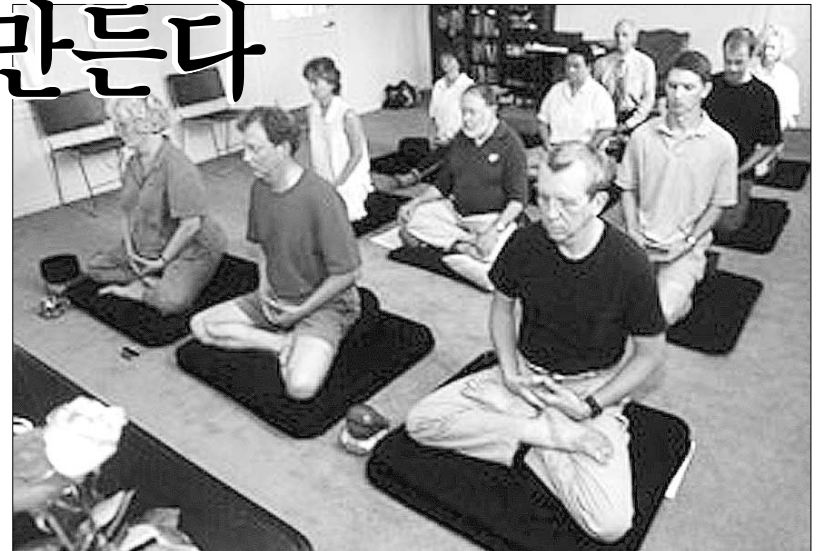
선의 종지(宗旨)는 불립문자(不立文字)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선사 또는 부처님의 말씀은 어둠이나 경전, 즉 언어를 매개로 한 서적에 의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가 존재하고 언어뿐만 아니라 사진, 오디오, 동영상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사회의 변화와 새로운 매체의 등장은 종교의 홍보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과거에는 전적으로 책에 의존했지만 현대사회에서는 대중매체를 이용한 1대 다수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인터넷에는 언어를 기반으로 한 텍스트 중심의 콘텐츠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최근 사진, 동영상 등의 멀티미디어 콘텐츠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불교계에서도 최근 멀티미디어 디지털 콘텐츠 생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

다. 조계종에서는 이미 1996년부터 아기부처님 캐릭터를 만들기 시작해 현재까지 등자승, 꽃비 휘장 등 120여종을 개발했고 플래시 애니메이션 공모전을 개최 하는 등 불교문화콘텐츠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우리의 역사, 문화, 예술, 생활과 관련된 각종 1차 자료를 문화원형이라고 한다. 불교는 1600년 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 해 왔기에 다양한 문화원형을 가지고 있다. 이들 자료를 활용, 디지털화 해 애니메이션, 게임, 전자책 등의 디지털 콘텐츠를 생산한다면 불교는 현대인의 일상 속으로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중앙승가대학교 김응철 교수는 "문화적 기반을 바탕으로 IT 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생산한다면 굳이 불교를 강조하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불자적 소양과 심성을 길러줄 수 있으므로 포교수단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 서구사회에서 불교수행법은 사회 각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명상이나 선이 미국, 유럽 등 서구사회에서 새로운 '영적문화'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서구사회에서 개인의 심신 안정, 웰빙을 위해 시작됐던 명상은 나아가 기업, 교도소, 학교 등 사회 각 분야의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재벌을 저하, 청소년의 스트레스 해소 및 탈선 방지, 기업의 업무효율 향상 등 명상활용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입증되고 있기 때문이다.

요가 관련 산업이 60억 달러 규모로 발전했다. 특히 미국 기업들 사이에서는 소위 '참선 경영'이라 불릴 정도로 참선을 통한 사원들의 자기개발을 독려한다. 미국 경제주간지 <비즈니스 위크(Business Week)>에 따르면 참선을 사원들의 사기진작 프로그램으로 채택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참선을 활용하는 목적은 회사에 따라 사원의 업무부담 감소 및 업무의 효율성 등 다양하다. 이들의 공통점은 참선 프

서구 수행영광 활용

학생·재소자 선도 등 사회대안으로 정착 생활의 변화 이끌며 산업구조로 '꿈틀'

▲ 학교에서의 명상수업 = 명상은 또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완화와 가출 등의 탈선 방지를 위해 학교에서도 활용된다. 영국 웨일스 남부의 카디프나 미국 매사추세츠 주 로웰, 디트로이트 시 등의 중·고등학교에서는 학교에서 수업이나 과외활동으로 명상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미시간대 대체의학 연구소의 최근 연구 결과는 명상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의 감정적, 사회적 안정에 변화를 준다는 것을 밝혀냈다.
▲ '자기개발' 및 업무효율을 위한 기업 내 명상프로그램 = 미국에서는 '자기개발(self-improvement)'을 위한 명상, 참선,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사원들의 스트레스 감소에 효과를 거뒀으며, 생산성 향상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이처럼 기독교 사교로 지배돼 왔던 서구사회에서 명상 등 불교 수행법이 사회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정작 불교권 국가인 한국사회에서 명상이나 참선이 활용되는 경우는 드물다. 오히려 서구사회가 얻어낸 명상효과를 '벤치 마킹'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한국에서도 불교 수행법의 범종교적인 사회장치화를 위해서는 불자들 스스로의 관심과 수행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자성이 필요하다.
한상희 기자

2004 갑신년 새해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 본사

용 주 사

주지 정락
총무 영명
기획 원오
교무 성무
재무 성직
사회 응진
호법 지강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송산리 188
전화 031)234-0040
전송 031)234-2818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본사

오대산 월정사

주지 玄海

대중일동

(232-941)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63
홈페이지 : www.woljeongsa.org

원주실 033)332-6661,2
월정사성보박물관 033)334-1817
종무소 033)332-6664,5
오대법보 편집실 033)333-6296
FAX 033)332-6915

월정사 진부 연꽃유지원·아련이집 033)335-8853,4
월정사 강릉장매안복지관 033)643-1801
월정사 강릉시 장애인보조작업장(해오름식당) 033)644-9442

대한불교조계종 제5교구 본사

속리산 법주사

조실스님 호일 범행
회주스님 원파 혜정
총지선원장 월복 함주
주지스님 허공장 지명
강주스님 향산
부주지스님 무상
기획스님 지원
재무스님 원일

법주사 대중일동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새내리 209번지
전화 043)543-3615
팩스 043)543-3620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본사

동 화 사

주지 일승 지성

부주지 진담 재 무 상 원
총 무 재윤 사 회 법륜
기획 정관 포 교 혜경
교 무 현천 호 법 선광

금당선원
조 실 법원 진제
선원장 지환

강원
강 주 도업 해월

사부대중일동

대구광역시 동구 도학동 35번지
전화 053)982-0101-2 팩스 053)985-4405
홈페이지 www.donghwasana.net

대한불교조계종 제23교구 본사

觀 音 寺

조 실 석 주
회 주 중 원
주 지 중 용 주
부주지 광 조
총 무 세 정
기획 사 명
교 무 유 정
사회 승 언
호 법 유 방

한라산 관음사 : 제주도 제주시 아라리동 387번지
전화 064)755-6830 팩스 064)756-2202
포교당 보현사 : 제주도 제주시 도남동 47-12
전화 064)722-2829-30 팩스 064)758-3367
홈페이지 www.hallasangwaneumsa.org